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박 현 경[†]

이 영 희

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적 상담 연구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변인간의 차이와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한국적 상담 모형의 토착화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첫째,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내담자가 기대하는 상담자 역할, 치료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둘째, 내담자의 문화적 성향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내담자가 기대하는 상담자 역할, 치료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집단상담 참가자 295명(남자 75명, 여자 220명)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상담활동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다문화적 상담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하였다. 즉, 문화적 성향에 따라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문제해결에 도움 받은 치료적 요인, 나아가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 자신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의 토대 하에 성립된 상담이론이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를 토대로 한 상담 이론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누적을 통해 한국적 상담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다문화적 상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치료적요인, 집단상담

* 본 논문은 후기필자(이영희)의 지도로 선기 필자(박현경)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3)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교신저자 : 박 현 경, (472-709)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전화 : 031-595-1238 E-mail : bomnaeum@hanmail.net

우리나라에 상담 이론이 도입된 것은 40여 년이 되었고, 비교문화적 상담 접근이 거론되어 우리나라의 정서와 문화에 맞는 상담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한지도 30년이 되어간다(김창대 1994; 김태호, 1991; 박현경, 1998; 설기문, 1993; 신혜경, 1990; 윤호균, 1978, 1991, 2001; 이동식, 1974; 이영희, 1975, 1982, 1984; 이장호, 김정희, 1989; 장성숙, 2003; 최재선, 1994; 홍희기, 2002). 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 동양적인 상담 모형의 모색이 갖는 의미는 서구 이론의 맹목적인 모방의 탈피에도 있지만 우리의 체질과 풍토에 적합한 상담이론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그 사회의 상식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담자를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때 현실과 사회 상식의 준거는 우리 사회의 다수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적 상담모형의 모색을 위한 연구들은 상담이론이나 기법이 한국인의 문화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대안을 찾았자 한 것이다(박현경, 1998, 2000).

우리나라와 같이 상담이론이 서구에서 도입된 경우 상담이론의 토착화와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상담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의 중요성을 인식한 문화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이영희, 1975, 1982, 1984). 이영희는 상담을 그 나라의 문화에 입각하여 적용하려면 한 문화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 즉, 한 문화권의 문화적 동일성을 결정짓는 이론적 정리가 필요하며, 상담자는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문화적 특성은 전통사회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한국문화의 특성을 유교적 전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토착화를 위한 연구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다문화적 상담연구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변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에 따라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동서양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인 개인주인-집단주의 성향,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상담자 역할, 내담자들이 상담의 성과로 여기는 치료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내담자들의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를 다루고자 함은 상담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경험, 가치관, 배경, 기대, 생활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Sue(1990)는 문화적 측면에서 유능한 상담자란 내담자와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정치적인 세력이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경험과 생활에 맞는 상담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한국인 내담자를 상담하는데 있어서도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배경, 기대, 관심, 일상생활 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문화가 서구에 비해 인종, 민족, 관습, 전통 면에서 동질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문화 내에 존재하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의 성별, 세대별, 사회경제적 배경, 출신지, 학력 등과 같은 문화 내적 요소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욕구, 상담에서의 기대, 상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충분한 의식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한 개념은 비교문화적(cross-cultural) 관점인데, 이러한 관점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의 비교문화적 상담은 백인 상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조기 종결이나 조기 탈락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백인 중산층 중심으로 형성된 상담이론을 소수민족 즉, 유색인종에게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중요한 연구 과제로 떠올랐다. 비교문화적 상담은 점차 민족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동일 민족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나타나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모든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고(Casas, 1984),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함할만한 보다 더 적절한 용어로서 다문화적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이란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내에서 다문화적 상담의 관심은 서양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하여 개발된 상담의 이론과 기법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민족 내담자에게 어떻게 변용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적 상담에 대한 관심의 초점 역시 서양에서 개발된 전통적 상담이론과 기법을 동양적인 문화 배경을 지닌 우리나라 내담자에게 적용할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박외숙, 1997). 국내에서는 지난 30여년 간 다문화적 상담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 문화에 맞는 토착화된 상담 모형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교문화 심리학의 입장에서 문화비교의 틀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은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개념은 본래 민족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발전된 개념이지만, 한 민족 내에서 개인차를 비교하는 틀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러한 개념은

Hofstede(1991)가 전세계 66개국에 지사를 지니고 있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operation)에 고용된 사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과 관련된 가치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 문화비교를 위한 한가지 준거로서 밝혀진 요인을 '개인주의'라고 칭하였으며 개인주의 반대편에 위치한 개념을 '집단주의'라고 명명하였다. Hofstede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란 개인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로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직속 가족을 돌보며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지칭하였다. 집단주의(collectivism)란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동안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 주는 사회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를 가리켰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애매하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동일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사람들 간에 평등이나 경쟁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자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즉 대인관계에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 가라는 범주를 추가하여 문화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문화가 같은 집단주의권(혹은 개인주의권)이라고 해도 대인관계에서의 서열이나 위계성을 바탕으로 수직적 교류를 하는 문화를 수직적 집단주의(또는 수직적 개인주의)로 분류하였다. 반면에 평등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교류를 하는 문화를 수평적 집단주의(또는 수평적 개인주의)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키부츠는 집단주의 문화의 속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대등한 관계를 중

시(수평적 집단주의)하는 반면에, 중국이나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성원들의 위계를 중시하는 수직적 집단주의 사회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한편 스웨덴의 개인주의 문화는 평등성을 중시(수평적 개인주의)하고 미국의 개인주의는 위계성을 중시(수직적 개인주의)하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4개의 차원은 학자들에 의해서 문화적 유형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데, Fiske(1992)는 집단주의는 공동분배, 개인주의는 시장 경제, 수직적 관계는 위계서열, 수평적 관계는 평등한 결합으로 나누어 문화의 유형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다문화적 상담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상담효과의 차이를 연구하는데 활용되어졌다(Foon, 1986; Lewis & Wash, 1980; Park, 1991; Tomas & Althen, 1989).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연구들도 있는데, 이영희, 박익숙 및 고향자(1995)의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잠재적 내담자로 놓고 모의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가치관 차이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주의 가치를 지닌 내담자는 분명하게 개인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상담자와 상담장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집단주의 가치를 지닌 내담자는 반드시 집단주의 가치를 반영하는 상담자의 상담장면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일련의 다문화적 상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상담의 토착화 연구에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동질집단인 하나의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문화권 내에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등과 같은 개인차 변인과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성향을

고려한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내담자의 개인차 변인과 문화적 성향들이 확보되어야 서구인을 중심으로 도출된 상담 이론을 그 문화에 맞는 토착화된 상담모형으로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의 대부분의 다문화적 상담 입장에서 한국적 상담모형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은 이론에 그치거나, 모의상담 연구를 통한 예측이거나, 잠재적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어떤 한 집단내의 비교연구(예를 들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가치관 차이를 연구하거나,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성별을 비교하여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연구하거나 등)에 그치고 있다. 비교문화적 상담 입장에서의 연구는 적어도 한 문화권의 주류와 비주류 또는 소수민족과 다수민족 등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비교문화적 상담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대학생과 일반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세대별 차이를 본다든가 학력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상담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것 같은 집단 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담자들의 성별, 세대별 등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문화적 성향 즉,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대변하는 개념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연구는 다문화적 상담 연구의 입장에서 한국적 상담모형을 다지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의 성장을 위하여 상담자를 찾는 내담자들은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자기와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expectation)이다(금명자, 2002; 이장호, 금명자,

1991; Patterson, 1958; Strong, 1968; Tinsley & Harris, 1976). 금명자(2001)는 상담의 비교문화연구들을 몇 가지 영역(상담자 역할, 내담자 호소문제, 문제 대응방식,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자들의 차이)으로 나누어 서양과 우리나라 혹은 동양과 비교하였다. 서양의 연구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영역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라고 하였다. 이는 동양의 문화권이 관계에 역점을 두고 권위와 인정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의 특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비교문화적 상담 연구에서는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문화적 성향이 다른 내담자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많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적 상담연구의 입장에서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내담자의 개인차 변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내담자를 맞이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 역할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파악하고, 상담자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상담관계의 지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성별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담중의 촉진적인 조건에 더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insley & Harris, 1976; Subich, 1983).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와 학년과의 관계는 내담자가 저학년일수록, 상담경험과 관련해서는 상담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더 큰 기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황, 1991; 지혜정 1988).

상담자 역할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 원인으로 방법론상의 약점과 기대의 정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연구시설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모델의 정확성 부족 등이 지적되었고(Duckro, Beal, & George, 1979), 우리나라의 연구들에서도 일관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비교이거나(금명자, 2002; 김은희, 2000; 박대환, 1989; 박애선, 1985; 박재황, 1991; 지혜정, 1988), 대학생을 잠재적 내담자 집단으로 보고 기대감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유유정, 1997; 이수현, 2000; 이장호, 금명자, 1991)이 있을 뿐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개인차 변인에 따른 기초 연구가 1960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개인차 변인별 차이를 연구한 논문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상담자 역할기대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상담의 비교문화적 연구들을 몇 가지 영역(상담자 역할, 내담자 호소문제, 문제 대응방식, 상담자 및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자들의 차이 등)으로 나누어 서양과 우리나라를 비교한 연구에서 서양의 연구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영역은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이다(금명자,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의 기대 중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잠재적 내담자가 아닌 실제 상담에 임하는 집단상담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대별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같은 특성변인의 비교를 통하여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바라는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상담 활동에 내재된 인간변

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효과를 보았다고 여기는 치료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연구로 집단상담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온 개념이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이다(Bloch & Crouch, 1985; Furiman & Burlingman, 1990; Holmes & Kivlighan, 2000; Kivlighan, Multon & Brossart, 1996; Yalom, 1975). 치료적 요인(therapeutic factors)이란 집단상담 과정동안에 집단지도자를 포함한 집단 구성원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이나 역동에 의해 집단원들의 변화나 개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제이다(Holmes & Kivlighan, 2000; Kivlighan, Multon, & Brossart, 1996).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상담 토착화 연구의 기초로 제시한 이유는 첫째, 외국 학자들이 제시한 치료적 요인을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때도 과연 동일한 요인으로 유목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우리나라 내담자가 제시하는 치료적 요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국외의 선행연구들은 개인차 변인에 따라 치료적 요인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개인차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하나로 집단상담 과정 성과 연구로 밝혀진 치료적 요인을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때 치료적 요인의 구조는 어떻게 분류되며, 개인차 변인에 따라 상담효과에 영향을 준 치료적 요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한편, 연구 대상을 집단상담 참가자로 하는 이유는 관계지향적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집단상담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이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은 최근 10여년 간의 집단상담에 관련한 연구에 의해 대부분 그 효과가 밝혀진 유효한 상담의 한 유형이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최근 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서구의 가치관을 많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서구적인 가치관이 그 세대들에게 더 잘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서구의 문화적 요소가 외연적인 제도나 형식에 나타날 뿐 내면적인 가치관과 행동과 태도에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담자의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치료적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증은 통하여 우리 문화에서 변화하는 내담자들의 가치와 상담자 역할을 통해 도움 받은 치료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적 상담모형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유료 상담기관에서 진행되는 집단상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내담자가 기대하는 상담자의 역할,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기대, 치료적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실시된 우리나라 유료상담기관의 집단상담 참가자 295명(남자 75명, 여자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집단의 수는 총 31개였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0대 117명, 20~30대 108명, 40대 이상은 70명이었다. 10대 청소년 집단은 그 특성상 학교의 의뢰 하에 실시하는 집단상담이나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최소한의 참가비를 받고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모두 5 종류로, 내담자의 기초정보를 묻는 질문지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상담자 역할 기대 척도, 중대사건 질문지, 치료적 요인 척도이다. 이들 질문지는 모든 집단상담 참가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는데 내담자의 기초정보를 묻는 질문지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그리고 상담자 역할 기대 척도는 집단상담 시작 전에, 중대사건 질문지와 치료적 요인 척도는 집단상담이 끝난 후 실시하였다. 척도별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는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였고 본 질문지를 통하여 집단상담 참가자의 세대별 문화적 성향 및 가치관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질문지는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의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차원은 모두 8문항씩,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9점 척도로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9=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보았으며 .80이었다.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 질문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상담기대질문지(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 EAC)가 있다 이 질문지는 Tinsley, Workman, 그리고 Kass(1980)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며 재사용하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EAC의 질문 중 상담자의 태도와 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1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하위변인은 상담자의 수용성, 직면성, 지시성, 공감성, 진실성, 양육성, 자기공개이다.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보았으며 .85로 검증되었다.

중대 사건 질문지

Bloch, Reibstein, Crouch, Holroyd와 Thermen(1979)의 중대사건 질문지(Critical Incidents Questionnaire: CIQ)는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회기가 끝난 후 집단원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인 사건 또는 경험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사건 질문지를 작성한 것을 기초로하여 다음에 설명할 치료적 요인 척도에 참가자들이 상담의 효과를 직접 평정하도록 하였다.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 척도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척도는 Kivlighan, Mullton 과 Brossart(1996)에 의해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된 치료적 요인척도(The Group Counseling Helpful Impacts

Scale: GCHIS)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보았으며 .86으로 검증되었다. GCHIS는 총 32 문항의 5점 평정척도이다.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하여 각각의 요인을 재명명한 하위요인은 긍정적 관계 체험, 통찰과 변화, 타인을 통한 도움, 적극적 정서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재구성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SPSS를 이용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SAS를 이용한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I】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증의 방법으로는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II】에서는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주로 관계를 기술하거나 변인들의 집합별 분산, 즉 두 특성 또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쓰인다.

결 과

연구문제 I. 성과 세대에 따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치료적 요인의 차이

성별, 세대별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의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집단상담에 참가한 내담자들은 성과 세대에 따라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참가자는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M=6.47)이 다른 문화적 성향 즉 수평적 개인주의(M=6.24), 수직적 집단

표 1. 성별-세대별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10대			20~30대			40대 이상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수직적 개인주의	5.50 (1.26)	5.73 (1.28)	5.62 (1.27)	5.88 (1.01)	5.41 (1.30)	5.47 (1.28)	4.63 (1.48)	4.86 (1.44)	4.85 (1.43)	5.53 (1.24)	5.35 (1.43)	5.39 (1.34)
수평적 개인주의	5.69 (1.22)	5.90 (1.16)	5.89 (1.18)	6.45 (1.03)	6.57 (1.23)	6.52 (1.22)	6.39 (.88)	6.51 (1.10)	6.50 (1.09)	5.88 (1.20)	6.36 (1.20)	6.24 (1.22)
수직적 집단주의	6.44 (1.00)	6.48 (1.04)	6.46 (1.02)	6.24 (0.80)	5.80 (1.44)	5.86 (1.38)	6.95 (.44)	6.22 (1.34)	6.27 (1.32)	6.43 (0.95)	6.12 (1.33)	6.20 (1.26)
수평적 집단주의	6.65 (1.13)	6.54 (.96)	6.59 (1.04)	6.18 (1.07)	6.27 (1.07)	6.26 (1.06)	6.25 (.92)	6.60 (0.91)	6.58 (0.91)	6.54 (1.11)	6.44 (1.00)	6.47 (1.03)

표 2. 성별-세대별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의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I) 세대	(J) 세대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도
수직적 개인주의	10대	20~30대	.1497	.1759	.696
	20~30대	40대이상	.6283 **	.2056	.010
	40대이상	10대	.7780 **	.2019	.001
수평적 개인주의	10대	20~30대	-.7455 **	.1574	.000
	20~30대	40대이상	.0479	.1841	.967
	40대이상	10대	.6975 **	.1808	.001
수직적 집단주의	10대	20~30대	.6002 **	.1651	.002
	20~30대	40대이상	-.4069	.1930	.110
	40대이상	10대	-.1934	.1895	.595
수평적 집단주의	10대	20~30대	.3312	.1371	.056
	20~30대	40대이상	-.3169	.1603	.144
	40대이상	10대	-.0143	.1574	.996

* $p < .05$, ** $p < .01$

주의(M=6.20), 수직적 개인주의(M=5.39)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성과 세대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고자 다변량분산분석을 한 결과 세대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 < .05$), 성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 성별과 세대별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세대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상담 참가자의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은 다른 문화적 성향에 비해 높지는 않았지만, 세대별로 비교하였을 때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10대보다 20대~30대와 40대 이상이 유의($p < .01$)하게 높았다.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20대~30대, 40대 이상이 10대보다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상

대적으로 10대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다는 기존의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10대가 20~30대보다 유의하게($p < .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10대 집단이 20~30대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나이든 연령대로 갈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30대, 40대 이상의 평균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세대별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통계치의 평균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모든 세대에서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의 평균이 가장 높음을 보았다. 따라서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은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

로 다른 가치 성향에 비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세대에 따른 상담자 역할 기대의 차이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집단상담 참가자 중 성과 세대별로 상담자 역할 기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집단상담 참가자들의 성과 세대별 상담자 역할 기대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다(표 3 참조). 전체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상담자에게 진실성(M=4.39), 직면성(M=4.13)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다.

즉, 집단 참가자들은 상담자가 정직하게 대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담자의 말과 행동의 차이나 단점을 지적해주고, 자신이 타인에게 비취지는 모습을 지적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세대별 집단 간의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성과 세대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와 성과 세대의 상호작용

표 3. 성별 세대별 상담자 역할기대의 평균과 표준편차

	10대			20~30대			40대 이상			전 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수용성	3.65 (0.65)	3.72 (0.65)	3.69 (0.65)	3.52 (0.96)	4.08 (0.68)	4.00 (0.74)	2.92 (0.92)	3.92 (0.74)	3.86 (0.78)	3.59 (0.74)	3.93 (0.70)	3.85 (0.73)
직면성	4.11 (0.56)	4.07 (0.68)	4.09 (0.63)	4.40 (0.68)	4.23 (0.66)	4.25 (0.67)	4.67 (0.27)	3.96 (0.75)	4.00 (0.74)	4.20 (0.59)	4.10 (0.70)	4.13 (0.67)
지시성	3.66 (0.66)	3.75 (0.77)	3.71 (0.71)	3.62 (0.78)	3.42 (0.90)	3.45 (0.89)	3.33 (0.94)	3.31 (0.85)	3.31 (0.85)	3.63 (0.69)	3.49 (0.86)	3.52 (0.83)
공감성	3.80 (0.73)	3.68 (0.71)	3.74 (0.72)	3.71 (0.79)	3.95 (0.68)	3.92 (0.70)	3.83 (0.58)	3.83 (0.76)	3.83 (0.75)	3.78 (0.73)	3.84 (0.71)	3.82 (0.72)
진실성	4.20 (0.74)	4.33 (0.59)	4.27 (0.66)	4.11 (0.56)	4.57 (0.52)	4.50 (0.54)	4.38 (0.48)	4.41 (0.52)	4.41 (0.52)	4.19 (0.69)	4.45 (0.55)	4.39 (0.60)
양육성	3.81 (0.70)	3.80 (0.64)	3.80 (0.67)	3.79 (0.80)	4.31 (0.63)	4.24 (0.65)	3.00 (1.08)	3.99 (0.81)	3.93 (0.85)	3.76 (0.71)	4.07 (0.72)	3.99 (0.73)
자기공개	3.63 (0.74)	3.60 (0.73)	3.61 (0.73)	3.86 (0.75)	3.87 (0.72)	3.87 (0.72)	3.75 (0.74)	3.63 (0.87)	3.64 (0.86)	3.68 (0.74)	3.72 (0.78)	3.71 (0.77)

표 4. 성별 세대별 상담자 역할기대의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I) 세대	(J) 세대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도
수용성	10대	20~30대	-.3140**	.0939	.004
		40대이상	-.1713	.1075	.283
	20~30대	10대	.3140**	.0939	.004
		40대이상	.1427	.1097	.430
	40대이상	10대	.1713	.1075	.283
		20~30대	-.1427	.1097	.430
직면성	10대	20~30대	-.1625	.0897	.196
		40대이상	.0858	.1027	.706
	20~30대	10대	.1625	.0897	.196
		40대이상	.2483	.1048	.062
	40대이상	10대	-.0858	.1027	.706
		20~30대	.2483	.1048	.062
지시성	10대	20~30대	.2586	.1096	.063
		40대이상	.3963**	.1255	.007
	20~30대	10대	-.2586	.1096	.063
		40대이상	.1377	.1281	.562
	40대이상	10대	-.3963**	.1255	.007
		20~30대	-.1377	.1281	.562
공감성	10대	20~30대	-.1856	.0963	.158
		40대이상	-.0963	.1103	.700
	20~30대	10대	.1856	.0963	.158
		40대이상	.0924	.1126	.714
	40대이상	10대	.0932	.1103	.700
		20~30대	-.0924	.1126	.714
진실성	10대	20~30대	-.2313*	.0784	.014
		40대이상	-.1356	.0898	.321
	20~30대	10대	.2313*	.0784	.014
		40대이상	.0957	.0916	.580
	40대이상	10대	.1356	.0898	.321
		20~30대	-.0957	.0916	.580
양육성	10대	20~30대	-.4394**	.0932	.000
		40대이상	-.1284	.1067	.486
	20~30대	10대	.4394**	.0932	.000
		40대이상	.3110*	.1088	.018
	40대이상	10대	.1284	.1067	.486
		20~30대	-.3110*	.1088	.018
자기공개	10대	20~30대	-.2573*	.1025	.044
		40대이상	-.0238	.1174	.980
	20~30대	10대	.2573*	.1025	.044
		40대이상	.2335	.1198	.151
	40대이상	10대	.0238	.1174	.980
		20~30대	-.2335	.1198	.151

* $p < .05$, ** $p < .01$

효과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효과검증 결과 성별 집단 간에 수용성, 직면성, 양육성, 세대간에는 양육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용성과 양육성은 성과 세대별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검증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 역할에 관한 세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수용성은 여자(M=3.93)가 남자(M=3.59)에 비해 높게 기대하며, 특히 20~30대의 여자(M=4.08)가 다른 연령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면성은 전 세대에 걸쳐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높게 기대하는 상담자의 역할이지만 특히, 남자(M=4.20)가 여자(M=4.10)에 비해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성은 여자(M=4.07)가 남자(M=3.76)에 비해 높게 기대하고 있으며, 20~30대의 여자(M=4.31)와 40대 이상의 여자(M=3.99)가 남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세대에 따른 치료적 요인의 차이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집단상담에 참가한 내담자들은 개인차 변인(성별, 세대별)에 따라 치료적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성별, 세대별 치료적 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참가한 집단상담 참가자들이 집단상담을 통하여 가장 도움 받은 요인은 요인 3 ‘긍정적 관계 체험(M=3.99)’이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요인 1 ‘통찰과 변화(M=3.87)’, 요인 4 ‘타인을 통한 도움(M=3.71)’, 요인 2 ‘적극적 정서 표현(M=3.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집단 활동에서 집단원과 집단지도자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긍정적인 관계를 체험하는 것을 가장 높은 치료적 요인으로 보았다.

다변량분산 분석 결과 성별 집단과 성과 세대의 상호작용 효과 간의 차이는 없으나, 세대별

표 5. 성별, 세대별 치료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10대			20~30대			40대 이상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요인 1: 통찰과 변화												
	3.75	3.75	3.75	4.10	3.92	3.95	4.17	3.92	3.94	3.85	3.87	3.87
	(0.53)	(0.46)	(0.49)	(0.39)	(0.49)	(0.48)	(0.39)	(0.44)	(0.44)	(0.52)	(0.48)	(0.49)
요인 2: 적극적 정서 표현												
	3.49	3.52	3.51	3.87	3.72	3.75	3.29	3.88	3.84	3.56	3.71	3.67
	(0.75)	(0.52)	(0.63)	(0.56)	(0.63)	(0.62)	(0.44)	(0.55)	(0.56)	(0.72)	(0.59)	(0.63)
요인 3: 긍정적 관계 체험												
	3.82	3.87	3.85	4.17	4.06	4.07	4.18	4.10	4.11	3.91	4.01	3.99
	(0.56)	(0.53)	(0.54)	(0.37)	(0.48)	(0.47)	(0.50)	(0.40)	(0.40)	(0.54)	(0.49)	(0.50)
요인 4: 타인을 통한 도움												
	3.57	3.56	3.56	3.96	3.78	3.81	3.69	3.81	3.80	3.66	3.72	3.71
	(0.54)	(0.57)	(0.55)	(0.47)	(0.65)	(0.63)	(0.31)	(0.51)	(0.50)	(0.54)	(0.60)	(0.58)

표 6. 성별, 세대별 치료적 요인의 사후검증 결과

종속변인	(I) 세대	(J) 세대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도
통찰과 변화	10대	20~30대	-.1880*	.0651	.017
		40대이상	-.1837	.0757	.054
	20~30대	10대	.1880*	.0651	.017
		40대이상	.0042	.0769	.998
	40대이상	10대	.1837	.0757	.054
		20~30대	-.0042	.0769	.998
적극적 정서 표현	10대	20~30대	-.2315*	.0828	.021
		40대이상	-.3460**	.0963	.002
	20~30대	10대	.2315*	.0828	.021
		40대이상	-.1145	.0978	.505
	40대이상	10대	.3460**	.0963	.002
		20~30대	.1145	.0978	.505
긍정적 관계 체험	10대	20~30대	-.2300**	.0664	.003
		40대이상	-.2665**	.0772	.003
	20~30대	10대	.2300**	.0664	.003
		40대이상	-.0365	.0784	.898
	40대이상	10대	.2665**	.0772	.003
		20~30대	.0365	.0784	.898
타인을 통한 도움	10대	20~30대	-.2530**	.0783	.006
		40대이상	-.2432*	.0911	.030
	20~30대	10대	.2530**	.0783	.006
		40대이상	.0098	.0925	.994
	40대이상	10대	.2432*	.0911	.030
		20~30대	-.0098	.0925	.994

* $p < .05$, ** $p < .01$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요인 1(통찰과 변화), 요인 2(적극적 정서표현), 요인 3(긍정적 관계 체험), 요인 4(타인을 통한 도

움) 모두 20~30대와 40대 이상이 높고 10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II.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기대, 치료적 요인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기대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에 따라 상담자 역할 기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자료분석 방법은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상담자 역할 기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정준함수 2개가 도출되었다. 정준 함수 V1의 경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67)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역할 중 진실성(.60)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지시성(-.52)과는 부적의 상관이 있었다. 정준 함수 V2의 경우는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69)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77)이 높을수록 상담자의 역할중 수용성(.80)과 지시성(.72), 진실성(.73), 양육성(.66), 자기공개(.64)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

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자 역할 중 진실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지시성에 대한 기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수용성, 지시성, 진실성, 양육성, 자기공개와 같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요약하면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위계 질서를 강조하며, 인간관계에서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수직적 성향(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이 높은 경우 상담자에게서 수용성, 지시성, 진실성, 양육성, 자기공개와 같이 여러 역할을 상담자에게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개인의 평등성과 독특성을 중요시 여기는 수평

표 7.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상담자 역할기대의 정준 부하량

	V1	V2	V3	V4
독립변인				
수직적 개인주의	-.14	.69	-.71	-.04
수평적 개인주의	.67	.53	-.06	-.51
수직적 집단주의	-.49	.77	.40	-.00
수평적 집단주의	.37	.50	.13	.77
종속변인				
수용성	.05	.80	-.34	.10
직면성	-.03	.51	.11	.24
지시성	-.52	.72	.15	-.08
공감성	.09	.59	.56	.29
진실성	.60	.73	.15	-.16
양육성	.32	.66	-.20	-.15
자기공개	.09	.64	-.12	.58

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상담자가 진실하기만을 높게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시적인 역할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자가 상담 초기에 지나친 개입이나 적극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보다는 내담자가 능동적으로 상담에 임하도록 수동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치료적 요인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이 치료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준 함수로 도출된 V1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86)과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59)이 높을수록 치료적 요인 중 통찰과 변화(.78), 적극적 정서 표현(.87), 긍정적 관계 체험(.69)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다.

요약하면 전체 집단상담 참가자에게서 도출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준 변수 V1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86),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59)과 통찰

과 변화(.78), 적극적 정서 표현(.87), 긍정적 관계 체험(.70)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상담 참가자들 중 개인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각 개인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수평적 교류를 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집단상담에서 상담의 효과로 보는 치료적 요인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담자의 역할을 우선으로 여기는 요인들 즉, 통찰과 변화, 적극적 정서 표현, 긍정적 관계 체험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집단상담 참가자들 중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서 표현과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정서 표현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의 주도적이고 활발한 역할이 요구되는 치료적 요인이다. 따라서 수평적이면서도 개인의 독특성과 자율을 추구하는 성향의 내담자들에게는 상담의 효과를 위해서 집단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지만 설명력이 높은 정준 변수 V2에 나타난 정준 부하

표 8.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치료적 요인의 정준 부하량

	V1	V2	V3	V4
독립변인				
수직적 개인주의	.23	-.20	.95	-.00
수평적 개인주의	.86	.21	.22	-.42
수직적 집단주의	.14	.60	.42	.67
수평적 집단주의	.59	-.44	-.03	.69
종속변인				
통찰과 변화	.78	.39	.36	-.34
적극적 정서 표현	.87	-.12	-.10	.46
긍정적 관계 체험	.70	.43	-.58	-.03
타인을 통한 도움	.36	.76	.07	.53

량은 흥미로운 결과를 시사한다. 집단상담 참가자 중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60)이 높을수록 치료적 요인 중 타인을 통한 도움(.76)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기며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여기는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도움을 받는 소극적 역할을 통해서도 상담의 효과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기대, 치료적요인의 관계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기대가 치료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유의한 정준 변수는 V1 1개가 도출되었다(표 9 참조). 독립변인 중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66)이 높고 상담자의 역할 중 수용성(.63)과 양육성(.58)을 높게 기대할수록 치료적 요인 모두와 상관(통찰과 변화 .82, 긍정적 관계 체험 .80, 적극적 정서표현 .79, 타인을 통한 도움.71)이 높았다. 이는 집단상담 참가자들 중 개인의 평등성과 독특성, 자유를 선호하면서 상담자에게서 따뜻함과 격려, 지지를 기대하고 상담에 임하는 내담자들은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치료적 요인 모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유의한 정준변수는 아니지만 설명력이 높은 V2의 결과도 흥미롭게 나타났다. 수평적 집

표 9.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기대, 치료적 요인의 정준 부하량

	V1	V2	V3	V4
독립변인				
수직적 개인주의	.12	-.23	-.34	-.71
수평적 개인주의	.66	-.30	.13	-.41
수직적 집단주의	.24	.27	-.17	-.26
수평적 집단주의	.36	-.55	-.07	.09
수용성	.63	.15	.04	.17
직면성	.42	.43	-.26	.07
지시성	.37	.47	-.24	.05
공감성	.37	.49	.28	-.12
진실성	.32	-.04	.55	.12
양육성	.58	.17	.37	-.13
자기공개	.38	.19	-.23	.15
종속변인				
통찰과 변화	.82	-.00	.13	-.55
적극적 정서 표현	.79	-.46	-.25	.32
긍정적 관계 체험	.80	.08	.46	.38
타인을 통한 도움	.71	.57	-.36	.21

단주의 성향(-.55)이 낮을수록, 그리고 직면성(.43)과 지시성(.47), 공감성(.49)을 높게 기대할수록 치료적 요인 중 타인을 통한 도움(.57)과 상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와 연구문제 I-2(표 3 참조)와 연구문제 II-2(표 8 참조)에서 도출된 결과와 함께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전 세대에 걸쳐 직면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1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지시성을 유의하게 높게 기대하였다. 집단상담 참가자 중 직면, 지시, 공감을 공통적으로 높게 기대하는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10대의 내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 중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치료적 요인 중 타인을 통한 도움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10대와 40대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차 변인 중 성과 세대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상담자 역할, 내담자들이 상담의 성과로 여기는 치료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의 역할 기대, 치료적 요인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세대별로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의 문화적 성향을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세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대부분

집단주의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교문화심리학자들이나 다문화적 상담 연구에서 주장하는 대로 문화와 환경에 맞는 상담을 도착화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개인주의 성향에 입각하여 구조화된 상담이론을 우리나라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의 문화적 성향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이할만한 점은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 중 10대는 집단주의 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높았고, 특히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20~30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20~30대와 40대 이상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10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나타난다는 문화심리학자들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1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발달단계의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인 또래 동조성(집단주의 문항 예: 나는 내가 속한 그룹-가족, 학교, 종교집단, 서클 등-내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가족, 학교, 종교집단, 서클 등-을 위하여 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한다) 때문으로 유추된다. 이는 개인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자신을 집단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우리'라는 의식을 고수하는 집단 문화나 '왕따'와 같은 학교 조직의 특수한 현상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하여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대 이상의 성인 내담자들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주목할만하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겪는 고충과 갈등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성향에 비해 상담을 통해 더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20대에 나타나는 문화현상인지는 지속적인 추수연구를 통해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성별,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에 비해 수용성과 양육성을 높게 기대하였다. 세대별로는 10대는 지시성을 다른 세대에 비해 높게 기대하였으며, 20~30대는 수용성, 진실성, 자기공개, 양육성을 유의하게 높게 기대하였고, 40대 이상은 다른 세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성별과 세대를 망라하여 상담자에게서 우선으로 기대하는 역할은 진실성과 직면성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유정(1997)의 연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금명자(200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는데, 상담자의 역할 기대 중 직면성은 다른 역할에 비해 상담자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역할이며, 행동의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법이다. 따라서 상담자들은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이 무엇보다 상담자에게서 진실하고 정직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자의 역할인 직면을 기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활동에서 상담자는 여러 역할을 다양하게 구사하여 내담자를 도와야 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내담자에 적합한 토착화된 상담이론을 정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할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의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 치료적 요인을 성, 세대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세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10대 보다는 20~30대와 40대 이상이 치료적 요인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연령이 낮은 10대 보다는 20대 이상의 내담자들이 상담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 받은 치료적 요인들을 높게 평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상담은 비자발적인 10대 보다는 자발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할 시에 상담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내담자들이 상담의 효과로 여기는 치료적 요인은 다분히 서구에서 연구한 요인들과는 구별되며, 한국 문화의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치료적 요인은 ‘통찰과 변화’, ‘적극적 정서 표현’, ‘관계의 긍정적 체험’, ‘타인을 통한 도움’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외국 학자들이 추출한 치료적 요인과는 뚜렷한 차이-Kivlighan 등에 의해 추출된 요인은 정서적 자각-통찰(Emotional Awareness-Insight), 관계-분위기(Relationship-Climate), ③ 타인 대 자기 집중(Other versus Self Focus), 문제 정의 및 변화(Problem Definition-Change)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 학자들이 추출한 치료적 요인을 그대로 우리의 내담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오점을 남길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추수 연구로 우리나라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적 요인에 대한 요인 추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전체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치료적 요인 중 ‘관계의 긍정적 체험’을 가장 도움 받은 요인으로 놓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속성이 강하여 관계지향적인 우리나라 문화에서 집단상담이 관계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장이며, 내담자를 단시간에 현실에 적응시킬 수 있는 유효한 상담 유형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화적 성향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의 역할 기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상담자에게서는 수용성, 지시성, 진실성, 양육성, 직면성 등 여러 적극적인 역할들을 기대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자 역할 중 진실성을 높게 기대하고, 지시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의 내담자들은 상담자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자의 역할은 소극적이면서 지시적인 역할은 자제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초기 종결을 막고 지속적인 상담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치료적 요인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 받은 치료적 요인을 '타인을 통한 도움'과 같은 내담자의 소극적 역할을 통해 상담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한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적극적 정서 표현'을 가장 높은 치료적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통찰과 변화', '관계의 긍정적 체험'도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담자의 문화적 성향의 차이가 치료적 요인과 상관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적극적 역할과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상담의 효과를 보고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

할기대, 그리고 치료적 요인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집단상담 참가자 중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수용성과 양육성을 높게 기대하는 내담자가 치료적 요인 모두를 높게 평가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은 문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서구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다. 상담이론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권의 산물인 만큼, 우리나라 내담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에서 치료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집단상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결과를 통하여 보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수용성과 양육성을 높게 기대하는 내담자는 인구통계학적인 결과(부록1참조)와 표2와 표4에서 나타나듯이 20대이상의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이상인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문화적 성향 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상담자 역할 기대와 치료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연구결과는 상담이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다문화적 상담 연구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 집단상담 참가자들은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과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과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에 비해 비교적 높아 동양인들이 가진 문화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결과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두 문화적 성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도 상담이 문화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즉,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과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내담자들이 상담자에게서 기대하는 역할과 상담 성과에 도움을 준 치료적 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확연히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상담 참가자 중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상담자에게서 수용성, 지시성, 진실성, 양육성, 자기공개와 같은 여러 역할

을 상담자에게서 기대하였고, 치료적 요인으로는 타인을 통한 도움이라는 요인에 의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서 진실성을 유독 높게 기대하였고, 문제 해결에 도움 받은 요인으로 통찰과 변화, 적극적 정서 표현, 긍정적 관계 체험 등 치료적 요인 4개 중 3개에 걸쳐서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내담자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상담에 임하는 자세나 상담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상담가들이 서구의 개인주의 상담 이론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내담자의 역할과 덜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통해서 상담이 성과가 있다는 견해만을 고수한다면,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을 지닌 내담자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주며, 상담에 있어서 효과가 축소되거나 조기종결이나 상담의 중단을 예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므로 상담이 다분히 문화에 입각한 활동인 만큼 상담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인식하여 상담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우리 문화와 내담자에게 적합한 한국적 상담이론 정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영주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심리적 세대 집단의 권위주의적 성향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경인 (2001). 집단상담활동의 유형화 연구: 치료적 요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 (2001). 한국문화와 청소년 상담. 장혁표, 최상진, 최준식, 유성경, 금명자 (저), 한국문화와 청소년상담 세미나,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계현 (2003). 상담심리학 연구II. 서울: 학지사
- 김득란 (1988). 아시아 지역의 상담-토착상담 및 토착화된 상담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7, 129-141.
- 김은진 (2001).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내외통제성 및 또래동조성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주은선 (2001). 내담자 변인과 상담형태에 따른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51-78.
- 김주미 (2002). 심리적 불편감, 자기은폐, 사회지지망, 개인주의 집단주의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대 (1998). 정서적 능력의 교육과 집단상담. 집단상담연구. 창간호, 대구: 집단상담학회.
- 김혜경 (1998). 상담경험과 성격유형에 따른 상담에 대한 기대감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1994). 상담자 역할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이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외숙 (1997). 상담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연구: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pp 295-341). 서울: 성원사.
- 박현경 (1998). 한국적 상담모형을 위한 내담자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연구, (?), 9-24. 동

- 신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박현경 (2000). 현실역동적 집단상담 I. 심연, 창간호, 9-11.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극동심연분회.
- 설기문 (1993).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본 상담의 토착화와 한국적 상담의 가능성. 학생연구, 21, 43-61. 동아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우성희 (1988). 상담에 대한 기대감과 성별, 특성, 문제유형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유정이 (2000). 집단주의 개인주의 성향과 상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9-32.
- 윤호균 (1996). 자기 통합집단의 치료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81-92.
- 윤호균 (1978). 심리적인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불교와 상담의 접근. 학생연구, 15(1), 93-104.
- 이동식 (1974).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 이수현 (2000). 내담자에 따른 상담기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박애선 (1994).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6(1), 119-141.
- 이영희, 박외숙, 고향자 (1996). 상담자-잠재적 내담자의 가치관 유사성과 기대되는 상담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8(1), 27-45.
- 이장호, 금명자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학생연구, 26(1), 1-18.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지혜정 (1988). 내담자 변인에 따른 상담 기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지영 (2000). 내담자 특성에 따른 개인 및 집단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상담기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1996). 한국적 심리학의 모색: 집단주의-개인주의. 사회과학논평, 1996(14), 63-91.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홍희기 (2002). 한국적 상담이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성 (199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한 교차문화적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kinson, D. R., & Matsushita, Y. J. (1991). Japanese-American acculturation, counseling style, counselor ethnicity, and perceived counselor credi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3-478.
- Bloch, S., & Crouch, E. (1985).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aibong, H. (2000).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11(1), 127-134.
- Corey, G. (199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Monterey, Calif.: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 Elliott, R., & Wexler, M. M. (1994). Measuring the Impact of Session in process-experiential

- Therapy of depression : The Session Impact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66-174.
- Furiman, A., & Burlingman, G. M. (1990). Consistency of matter; A comparative analysis of individual and group process variab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18(1), 6-63.
- Gelfand, M. J., & Triandis, H. C., (1996).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or versus authoritarian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397-410.
- Heppner, P. P., Kivlighan, D. M., Jr., Good, G. E., Rohelke, H. J., Hills, H. I., & Ashby, J. S. (1994). Presenting problems of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lients: A snapshot and multivariate classification sche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1), 315-324.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 software of the mind*. London : McGraw-Hill.
- Holmes, S. E., & Kivlighan, D. M., Jr. (2000). Comparison of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and individual treatment proces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78-484.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Jin Ryung Kang (1992). *The Effects of Counselor Ethnicity, counseling style, and Acculturation on male Korean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counselor effectivenes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ndiana.
- Kelly, G. A. & Shilo, A. M. (1991). Effects of individualistic and social commitment emphases on clients' perceptions of counselors. *Professional Psychology : research and Practice*, 22, 144-148.
- Kivlighan, D. M. (1994). *Projection in Group Counseling :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Interpersonal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 of the Group Leader*.
- Kivlighan, D. M., Mullton, & Brossart, D. F. (1996). Helpful impacts in group counseling: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Rating Syst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347-355.
- Markus, H. D. & Kitayama, S.(1990). Cultural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1989). Cultural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emo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92-105.
- Miller, J. G. (2002). Bringing culture to basic psychological theory-Beyon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omment to Oyserman et al. (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 97-109.
- Munro, D. (1997). Levels and process in motivation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 3-15. New York: Routledge.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S.,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ue, D. W. (1990).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s*(2nd,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Tinsley, H. E. A., Bowman, B. L., & Barich, A. W. (1993). counseling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occurrence and effects of unrealistic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mong thei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6-52.
- Triandis, H. C., & Gelfand, M. J.(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YalomI. D. (198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logy* (3rd ed.). New York: Basic Books.
- Yoo, S. K. (1997). *Individualism-collectivism, attribution style of mental illness, depression symptomatology, and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원 고 접 수 일 : 2004. 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4. 10. 25

게 재 결 정 일 : 2004. 11. 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ism-Collectivism, Client's Expectations of the Counselor's Role, and Therapeutic Factors with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Hyun-Kyung Park

Young-Hee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ltural differences amo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 client's expectations of the counselor's role and therapeutic factors according to gender and generation on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295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75 men and 220 women) were recruited from all over the country. Four kinds of scale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Scale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Questionnaire, Critical Incidents Questionnaire, and The Group Counseling Helpful Impacts Scale. MANOVA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for the data. The research questions and results are as follows. Research I-1;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exhibited significant differences as generation, That is, the elder generation showed high levels of horizontal individualism, while the younger showed high levels of horizontal collectivism. Research I-2; Males had high expectations of the confrontation while females had high expectations of the acceptance and nurture. And teenagers had high expectations of the directiveness while twenties or thirties had high expectations of the acceptance, genuineness, nurture, self-disclosure. Research I-3; The elder access highly insight-change, active emotional expression, positive relationship experience, help to the others as important therapeutic factors more than teenagers did. Research II-1; High level of horizontal individualism was related to genuineness. And high level of vertical individualism and horizontal individualism were related to acceptance, directiveness, genuineness, nurture, and self-disclosure. Research II-2; High level of horizontal individualism were related to insight-change, active emotional expression, and positive relationship. Research II-3; High level of horizontal individualism, acceptance, and nurture were related to insight-change, active emotional expression, positive relationship, and help to the others.

Key Words :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 client's expectations of the counselor's role, Therapeutic factors, Group counseling

부 록 1

표 10. 집단상담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대(%)	20~30대(%)	40대이상(%)	계(%)
성별				
남	54(46.2)	14(13.0)	7(10.0)	75(25.4)
여	63(53.8)	94(87.0)	63(90.0)	220(74.6)
계	117(39.7)	108(36.6)	70(23.7)	295(100)
학력				
고졸 이하	117(100)	6(5.6)	4(5.7)	127(43.1)
대졸 이상	-	102(94.5)	66(94.3)	168(56.9)
계	117(39.7)	108(36.6)	70(23.7)	295(100)
상담 경험				
유	36(30.8)	56(52.8)	43(63.2)	135(46.4)
무	81(69.2)	50(47.2)	25(36.8)	156(53.6)
계	117(40.2)	106(36.4)	68(23.4)	291(100)
SES*				
상	13(11.3)	5(4.7)	3(4.3)	21(7.2)
중	100(87.0)	93(86.9)	60(87.0)	253(86.9)
하	2(1.7)	9(8.4)	6(8.7)	17(5.8)
계	115(39.5)	107(36.8)	69(23.7)	291(100)

* SES(Socioeconomic Status)는 집단상담 참가자들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였다.

부 록 2

표 11. 집단상담의 실시기간, 집단의 성격, 집단지도자의 특성

집단실시기간	실시 시간	참가 인원	회수 부수	대상	집단의 유형	지도자의 자격 및 인원	지도자 경력	비고
1. 25~1. 26	15	6	3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2인	10/5년	마라톤집단
1. 27~1. 29	21	9	9	대학원생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2. 7~2. 12	50	20	20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2인	15/20년	"
2. 5~2. 7	15	12	9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7년	"
2. 5~2. 7	15	7	6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2. 17~2. 19	15	5	5	대학생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0년	"
2. 17~2. 19	21	8	8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2. 23~2. 27	40	14	13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2. 26~4. 2	24	7	7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7년	주간 집단
2. 26~2. 27	12	13	13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마라톤집단
2. 26~2. 27	12	13	12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2. 26~2. 27	12	9	9	청소년	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5년	"
2. 26~2. 27	12	10	10	청소년	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5년	"
2. 26~2. 27	12	12	12	청소년	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5년	"
2. 26~2. 27	12	16	16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5년	"
2. 26~2. 27	12	15	15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5년	"
2. 26~2. 27	12	16	16	청소년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5년	"
3. 6~3. 8	21	5	5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3. 7~3. 9	21	6	6	일반성인	비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15년	"
3. 22~3. 23	15	7	7	일반성인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7년	"
3. 22~3. 23	15	8	8	일반성인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7년	"
3. 22~3. 23	15	8	8	일반성인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8년	"
3. 22~3. 23	15	9	9	일반성인	구조화	상담전문가1인	8년	"
3. 22~3. 23	15	8	8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0년	"
3. 22~3. 23	15	9	9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8년	"
3. 22~3. 23	15	8	8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0년	"
3. 22~3. 23	15	9	9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0년	"
3. 22~3. 23	15	7	7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0년	"
3. 22~3. 23	15	9	9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8년	"
3. 29~3. 30	15	14	14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5년	"
3. 29~3. 30	15	7	5	일반성인	비구조화	집단상담전문가 1인	10년	"
총 306명 참가 295 부 회수						상담경력 평균	10.2년	